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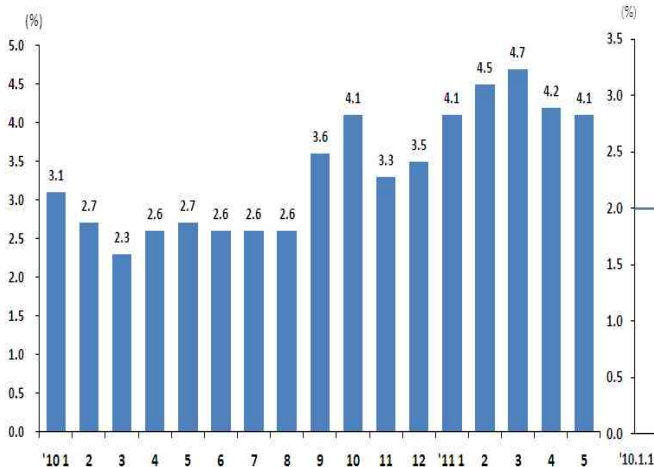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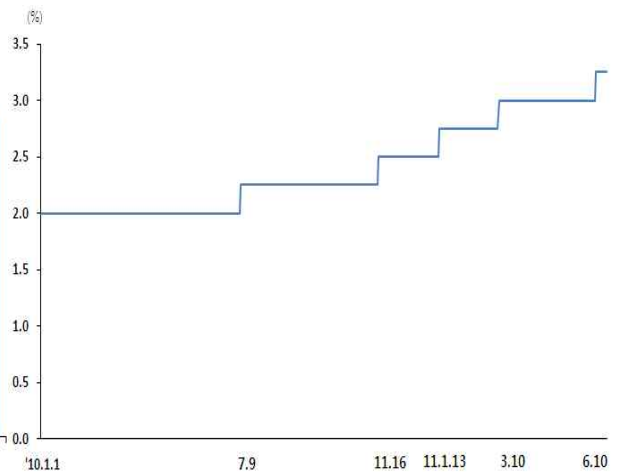
■ 금융통화위원회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2011년 6월 10일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미국경제의 더블딥(double dip)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중동지역 불안, 일본 대지진 등과 같은 대외적 위험요인과 저축은행 사태라는 대내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최근 3개월간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2011년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증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단행됨.
- 2010년 7월 9일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으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25%로 운용됨.

〈그림 1〉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림 2〉 기준금리



자료 : 한국은행

■ 일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잠재우기 위해 연내 2~3차례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일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여력 감소 및 내수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세계경제도 여전히 많은 불안요소를 안고 있어 단기간 내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3대 위험요인으로 물가불안, 가계부채, 대외 리스크를 꼽으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전방위적 확산 우려가 가장 큰 위험요인인 것으로 지목하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조치를 통하여 이에 대해 최우선적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통화정책방향, 한은, 6/10)